

#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'25년까지 2배 이상 확대

- 1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 
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핵심거점인 포항 특화단지 방문

1.17.(수)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방문했다. 이날 강경성 1차관은 포항 특화단지 내 주요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애로를 청취하고,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둘러보았다.

포항은 지난해 특화단지 지정 시 '27년까지 12.1조 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, 특화단지 지정 이후 3.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논의, 검토 중이다. 포항에는 포스코퓨처엠, 에코프로 등 국내 대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위치해 있고, 광물가공-전구체-양극재·음극재-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소재 전주기 생태계까지 구축되어 있어 이차전지 공급망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.

특히 이날 강경성 1차관이 방문한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, 핵심원자재법(CRMA)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 대응할 핵심시설로서 주목받고 있다.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생산공장인데다 포스코 제철 공정의 부산물인 콜타르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원재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완전한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. 현재 연 8천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올해 1.8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며, '25년 말까지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대비 생산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.

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“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안보와도 직결된 첨단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만큼, 튼튼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”고 강조하면서, “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·세제, 연구개발(R&D), 규제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며 현장 방문 의의를 밝혔다.

이와 함께 강 차관은 “올 한해동안 이차전지 분야에 5.9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, 특화단지별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해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하며 “특히 포항 특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한해동안 150억 원 이상의 인프라, 인력, 연구개발(R&D) 사업을 적기 추진하겠다”고 언급했다.

담당 부서	첨단산업정책관	책임자	과 장	신용민	(044-203-4260)
	배터리전기전자과	담당자	사무관	이기현	(044-203-4266)

## 참 고

##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장방문 개요

- **목 적** : 특화단지 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
- **일 시** : '24. 1. 17일 (수), 10:00~11:20 (80분)
- **장 소** :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 
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(블루벨리 산단)  
\* (위치) 경북 포항시 블루벨리동로 282 인조흑연음극재공장
- **참석자**
  - 산업부 : 강경성 1차관, 신용민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등
  - 지자체 :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,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
  - 기 업 :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, 김재호 우전지앤에프 대표, 박재홍 피엠그로우 대표
  - 기 관 : 이상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

### □ 세부일정(안)

시간	주요 내용	비고	
10:00~11:20	80'	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방문	
	(60')	① 포항 이차전지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- 특화단지 추진 현황 및 활성화 계획 발표 - 참석자 자유 토론	1차관 모두발언 까지만 공개
	(20')	②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현장 시찰	비공개